

# 인쇄후가공

다국적  
기업! 뮐러마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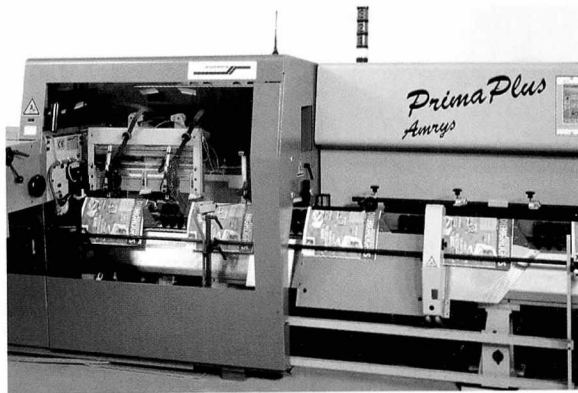
MÜLLER MARTINI

뮐러마티니는 한스 뮐러(Hans Müller)에 의해 1946년 스위스 조핑겐(Zofingen) 지역에 설립, 전세계에서 인쇄 후가공 업계의 선두주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전세계 4,000여명의 뮐러마티니 임직원들은 제책 및 인쇄관련 첨단기술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뮐러마티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미국 등지에 총 9개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30개의 독립법인과 100여개의 판매, 서비스 조직을 통해 전세계 190여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제책기기 시장의 세계적인 리더인 뮐러마티니의 시장점유율은 중철 제본기 약 70%, 무선철 제본기 약 50%에 달하며, 기타 운전 인쇄 및 신문 발송 시장에서도 30~40%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 관련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다.

## 중철제본 시스템



중철 제본은 회사가 설립된 1946년부터 생산이 이뤄진 뮐러마티니의 주사업 부문이다.

뮐러마티니는 각 용도에 따른 중철제본기의 완벽한 상품 구성 뿐 아니라 인쇄접지물 처리 시스템과 인쇄접지물 처리 시스템에서 인쇄물 적재까지의 과정을 위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철 제본 작업에 있어서, 생산의 효율성과 유연성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현대의 제본에는 인쇄물의 부가적 사용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널, 잡지, 광고 매체 등은 잠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내용과 디자인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화 메일 등의 선택적 제본(Selective Binding)의 경향과 삽입물, 풀칠된 상품 견본, 주문 카드의 삽입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미디어들은 더욱 다양한 색상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제본 방식의 요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뮐러마티니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개발로 다변화되고 까다로워진 제본 방식을 가능케 하는 여러 기종의 중철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화 메일 등의 선택적 제본(Selective Binding)의 경향과 삽입물, 풀칠된 상품 견본, 주문 카드의 삽입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미디어들은 더욱 다양한 색상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제본 방식의 요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뮐러마티니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개발로 다변화되고 까다로워진 제본 방식을 가능케 하는 여러 기종의 중철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 브라보 플러스(BravoPlus)

브라보 플러스는 한글이 지원되는 터치 스크린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중철 제본물을 시간당 12,000부 속도로 생산할 수 있다. 운전 및 세팅이 용이하고 자가진단 및 경고 메시지가 한글로 표시되



뮐러마티니 본사 건물

# “우리가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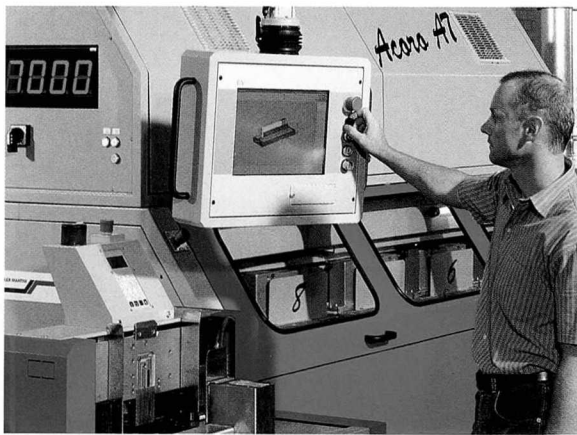
어 이상 발생시 문제 해결이 쉽다. 작업 전환 시스템인 암리스(Amrys-Automatic make ready system) 기능을 고객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중철 라인으로서 기계의 유연성 및 경제성이 한층 개선되었다. 정합기, 중철기, 삼면재단기 모두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 프리마플러스(PrimaPlus)

브라보-플러스의 모든 기능에 선택적 제본(Selective Binding)을 위한 기계구성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며 한국에도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화 메일(개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차별적으로 제작되는 잡지 등의 인쇄물)에 적합한 중철기이다. 두 개의 기기가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제본물의 종류가 많아 여러 개의 정합기가 필요할 때에는 1대의 중철기로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2대의 중철기로 사용할 수 있는 탠덤(Tandem) 기능이 있다.

## 무선철 제본 시스템

대량의 무선철 제본 제품을 고속으로 생산할 때도 고품질의 작업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이의 재질, 접착제, 책등 준비공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러마티니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부단한 기술개발로 종이 가장자리의 섬유조직 강도를 약화·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책등을 거칠게 함으로써 접착제가 침투하는 표면적을 크게 증가시키는 다양한 종류의 책등 준비공구를 갖추고 있다. 이로써 종이의 재질 및 접착제의 종류에 맞춰 각 제본 작업마다 종이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책등 준비공구인 파이버 러퍼(Fiber Rougher)는 특허품으로서 여러 개의 미세 톱니를 이용, 종이 코팅을 클레이징시킬 염려 없이 섬유질을 이상적으로 노출시켜 완전 펼침을 구현시킨다.

## 티그라(Tigra)

소규모 및 중규모 제본소에 적합한 시간당 3,600부 속도의 무선철 기로서 저렴한 가격의 작업 효율성이 돋보인다.



루돌프 물러 회장

## 물러마티니 연혁

- 1946년 한스 물러(Hans Müller)에 의해 스위스 조핑겐(Zofingen) 지역에 Grapha Maschinenfabrik사 설립
- 1946년 패드 중철기 첫 생산
- 1951년 로토바인더(Rotorbinder) 첫 생산
- 1954년 지동 중철기 첫 생산
- 1955년 독일에 영업 및 서비스 조직 Grapa Germany사 설립
- 1958년 스위스 조핑겐(Zofingen) 지역에 공장 증설
- 1964년 스위스에 Grapha Electronic사, 독일에 Grapha Maulburg사 설립
- 1967년 100% 지분 투자 미국 판매 법인 Hans Muller Corporation 설립
- 1968년 다양한 사이즈의 인서트장착되는 오프셋 윤전기 개발
- 1969년 스위스에 Martini AG, Felben 설립
- 1972년 Müller Martini AG, Zofingen이 중앙 마케팅 조직으로 재편
- 1974년 일본에 물러마티니 판매 법인 설립
- 1975년 미국 Grapha, Newport News 공장에서 생산 시작
- 1989년 덴마크 KJ Maskinfabriken A/S사 물러마티니사에 합병
- 1992년 미국 GMA사 설립
- 1992년 4개 사업분야로 분리
  - 물러마티니 중철 제본 시스템
  - 물러마티니 무선철 제본 시스템
  - 물러마티니 신문 발송 시스템
  - 오프셋 인쇄 시스템
- 1997년 아시아(한국 포함) 지역에 물러마티니 판매 법인 설립, 홍콩에 본사
- 2000년 독일회사 VBF Buchtechnologie GmbH 합병, 사업분야 추가 물러마티니 양장제본 시스템 개발
- 2002년 북 테크놀로지 그룹 일원으로 활동

## 물러마티 기술의 지향점

- 종이, 잉크 및 접착제의 최적화된 결합으로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한 고품질의 책을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본 기술의 개발
- 소량 다품종화 되어 가는 시장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작업 준비시간 및 작업 전환 시간을 단축시키고, 소규모 작업부터 다량의 작업까지 전천후로 처리할 수 있는 고기능의 자동화 제본 시스템 개발. 각 기계마다 각 나라 언어 사용이 가능한 터치 스크린 방식의 간편 제어 시스템 구축.
- 자동화 고속 삽지 시스템을 활용한 선택적이고 유연성 있는 신문 발송 시스템 구현
- 다양한 인쇄 용지에 광범위한 제품의 고품질 인쇄 후, 인라인 펀칭, 퍼포레이팅, 코팅, 넘버링 및 폴딩 등 일련의 공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 효율 극대화.

## 기업방침

### 작업공정 · 생산 효율성 극대화

'물러마티의 차별되는 장점은 물러마티 사람들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초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장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기계가 있더라도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직원들이 첨단기술로 항상 앞서가는 디자인과 솔루션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생산성을 도모한다.

### 지속적 이윤 창출 위한 최고의 품질

물러마티는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창업 이래 50여년간 물러마티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시장의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과 경쟁업체보다 앞선 기술개발, 최상의 제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종업체보다 훨씬 많은 연구개발비를 책정하고 있다.

###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기술 개발

50여년간 물러마티는 수많은 비즈니스로 고객과의 친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으로 더욱 효율적인 인쇄 및 후가공 첨단기술을 이끌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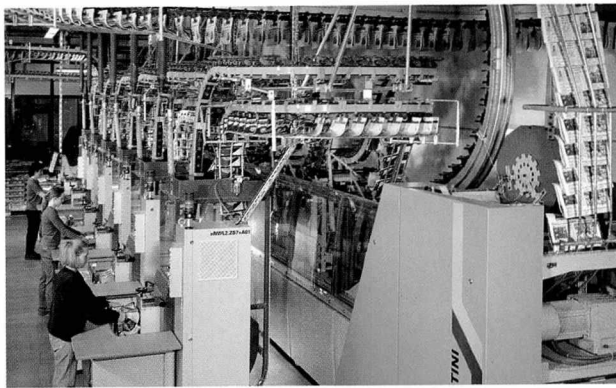
### 아코로5/아코로7(Acoro5 속도:시간당 5,000부, Acoro7 속도:시간당 7,000부)

작업 전환 소요 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완전 자동 무선철기이며 작업 데이터를 저장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한글이 지원되는 터치 스크린으로 작업 전 과정이 제어되며 다품종 소량화 되어 가는 현대의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이다.

### 코로나 콤팩트(Corona Compact 속도 시간당 12,000부)

유럽 및 미국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던 고속(최고속도 시간당 12,000~18,000부) 무선철기인 코로나(Corona)를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을 겨냥, 공간 절약형 기계로 새롭게 설계한 무선철기이다. 작업전환이 신속하고 한글이 지원되는 터치 스크린으로 작업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으며 품질과 생산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 신문 발송 시스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는 신문사가 생존을 위해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현대의 신문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삽

지물이 달라지고 있으며 삽입된 고객 부로슈어, 복권, 미리 인쇄된 신문 페이지 등이 구독자에게 바로 그 날, 그 시간에 배달되어야 한다. 물러마티의 고객 맞춤식 메일룸(Mail-Room) 시스템은 신문 인쇄 시점부터 인쇄물 적재(Loading Dock)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첨단 삽지 기술이 결합되어 신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유연성은 고부가가치를 가능케 해 신문의 수익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

메일룸 시스템의 주요장치로는 시간당 85,000부를 인쇄기에서 신문발송 장치로 이송하는 뉴스그립(Newsgrip)을 들 수 있다. 이 뉴스그립에 장착된 체인과 190mm의 와이드 플라스틱 그립퍼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며, 픽업 동작이 간편하고 그립퍼간의 간격이 짧게 설계되어 저속에서부터 고속 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 오프셋 인쇄 시스템

물러마티 비즈니스폼 운전기는 유럽과 미주지역은 물론 아시아 국가 인쇄시장에서 성능과 그 경제성이 입증,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서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특히 높은 품질과 고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항공권은 세계 시장의 70%이상이 물러마티 니 기계에 의해 생산된다.



분당 최대 305미터의 인쇄속도를 자랑하는 컨셉트 (Concept) 운전기는, 업체 최초로 UV잉크 뿐 아니라 일반 오프셋 잉크도 사용이 가능하며 4색 인쇄유니트를 통해 스트레이트 웹 패스를 시킨 다음, 다섯번째 플렉소 인쇄유니트에서 UV 코팅으로 잉크를 봉인하여 고풍택의 인쇄를 일반 잉크로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성을 한층 높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컨셉트는 물러마티에 의한 수요자 자체 평가 결과, 기존의 수동 기계에 비해 작업 준비시간과 파지는 각각 38%, 50% 줄고 생산성은 98%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 컨셉트 운전기는 동일한 인쇄 유니트에 오프셋 인서트, 건조 오프셋 인서트, 플렉소 인서트, 넘버링 인서트, 레터 프레스 인서트, 바니싱 인서트, 시큐리티 프린팅 인서트 등 다양한 인서트를 교환, 사용할 수 있어 장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 양장 제본 시스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응, 물러마티니는 양장 시스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Muller Martini VBF 자회사에서 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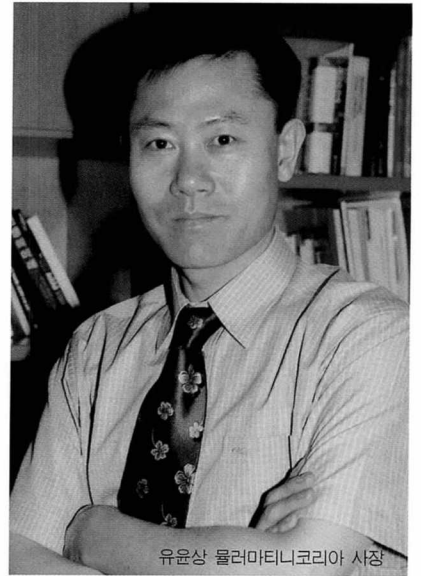
최근 국내시장에서 30여대가 판매된 인벤타플러스 (InventaPlus) 사철기는 분당 200부의 고속생산이 가능하다. 더블 그립퍼 드럼이 장착된 30도 경사의 휘더 설계로 접지물 사이의 마찰을 막아주고, 하단 섹션의 적재 무게를 최소화함으로써 섹션의 분리를 완벽히 수행한다.

신제품 벤츄라(Ventura)는 책등 길이 120~510mm까지 작업이 가능하여 2판결이는 물론 멀티 생산 모드도 가능한 차세대 사철기이다. 다이아몬드(Diamant)는 초경량지에서 크롬코팅지까지, 가장자리 금박 처리 및 리본 삽입 등 다양한 북블력을 시간당 3,600부 속도로 생산하는 양장라인이다. 부품의 내구성이 뛰어나 소모품의 마모와 교체율을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한다.

## 물러마티니 코리아

물러마티니 전제품의 국내 마케팅 활동을 담당했던 한국 EAC그래픽스의 물러마티니 한국내 대리점권이 1997년 9월에

종결되고 물러마티니 홍콩지역 본사에 물러마티니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과 함께 물러마티니코리아(주)(대표이사 유운상)가 편제됐다. 이에 따라 물러마티니코리아는 1997년 10월 1일 현지 법인으로 설립, 국내 영업 및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유운상 물러마티니코리아 사장

한국 현지 법인 설립 직후, 물러마티니코리아는 IMF를 맞아 2년 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을 한국 인쇄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기로 활용하는 한편, 1999년 하반기부터는 괄목할 만한 판매실적 증가를 이룩함으로써 물러마티니 본사에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물러마티니의 마케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객가치의 극대화이다. 각기 다른 고객은 그 나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공급 업체는 개별 고객의 보다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수요에 대해 최적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매한 고객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실현케 되면 결과적으로 고객가치의 극대화에 한 몫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경쟁적 우위를 어디서 이끌어 낼 것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기술 및 서비스의 차별화이다. 타사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첨단 하이테크 기능의 장비를 공급하고 개별 고객의 특정 수요에 정확히 가능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 변화를 민감히 감지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경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효과적인 차별화는 누가 더 고객의 특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가격, 최적의 사양,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1997년 현지 법인 설립 이래로 50여대의 중철라인을 공급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달성했던 물러마티니코리아는 2001년부터는 다양한 장비공급을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 무선철 라인, 사철 라인, 양장라인, 비즈니스 폼 운전기 분야의 판매가 크게 신장되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 세계적인 접지기 생산사인 독일의 MBO사와 한국 독점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접지기 분야에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갑준 기자〉